

다산 정약용 행초서行草書의 특징 — 〈하피첩霞帔帖〉의 사례

윤성훈 |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

목차

1. 서론
2. 다산의 서법관書法觀
3. 〈하피첩霞帔帖〉과 미불 〈축소첩蜀素帖〉의 비교를 통해 본
다산 행초서行草書의 특징
4. 결론

1. 서론

사람의 본성인 인성人性과 천지자연의 이치인 물리物理에 대한 찰지察知·탐구를 바탕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도리道理를 함양·실천하는 것을 본령으로 하는 성리학性理學은 학문과 문예의 필수적 매체인 ‘문文’에 대하여 일견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했다. 문이 도를 담지한 중차대한 수단임을 인정하는 ‘문이재도文以載道’의 문예론을 견지하는 한편, 문장文章 및 시詩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을 경계하는 ‘완물상지玩物喪志’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 것이다. 일상적 차원에서 보면, 거업舉業·주해注解·사장詞章·시문詩文·서찰書札·서법書法 등등을 폭넓게 포괄하는 문한文翰은 분명 성리학자 및 문인사대부에겐 학문과 일상 양면에서 모두 평생을 함께해야 할 불가결의 동반자였다. 때문에 완물상지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한가로운 시작詩作 혹은 화려한 수사의 글짓기를 경계하면서도, 재도載道の 중요한 매체로서 ‘문’이 갖는 가치는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넓은 외연을 갖는 ‘문’ 중에서도 현대의 분류상 예술 즉 문학에 해당할 시문 짓기로서의 문의 지위는 결코 낮지 않았다.

그러나 작문作文의 동반인 ‘글씨’는 가장 외형에 치우친 것이어서 가장 비본질적인 ‘나머지’(餘) 즉 ‘여기餘技’로 취급받기 일쑤였으며, 때문에 ‘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낮은 이론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런 한편, 그것은 가장 일상적인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것이기도 했다. 글씨에 관한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성리학의 선진先進 중 한 명인 북송北宋의 학자 명도明道 정호程顥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자제들이 빼어나고 경박하여 걱정된다면, 성인의 말씀을 공부하고 책을 읽게 하기만 해야지 글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자제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모두 도道를 추구할 뜻을 앗아간다. 글씨와 편지의 경우는 유자儒者에겐 가장 가까운 것들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애착을 가진다면, 이 또한 뜻을 빼앗는 존재가 된다. 왕희지·우세남·안진경·유공권 등은 진실로 훌륭한 사람들이긴 하다. 하지만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치고 도를 아는 이를 본 적이 있는가? 평소 정력을 여기에만 쓴다면 시간을 헛되이 날릴 뿐 아니라 도에 방해가 되기도 하니, 뜻을 잃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

이는 『소학小學』(제5편 가언嘉言 광입교廣立敎)과 『근사록近思錄』(권11)에도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이었다. 여기에서 단장취의斷章取義하여 ‘서찰’—이 구절의 원래 맥락에서는 ‘글씨’와 ‘편지’를 의미하나— 즉 편지를 ‘가장 가까운 것’(최근最近)으로 부르기도 할 정도였다. 과연 편지는 조선시대 유자에게 가장 일상적인 자 친근한 매체였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 문맥에서 정명도의 경계는 자못 심각한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서書’ 즉 글씨에 대한 존중의 편린조차 찾기 힘들며, 현실적으로는 가장 일상적이며 친근한 완호玩好 즉 예술적 감상 및 실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적 대상이 될 가능성을 애써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물론 정명도 혹은 주희朱熹 및 여타 송대 성리학자들에게서 글씨에 대한 긍정적

1) 『二程遺書』 권1, 『端伯傳師說』. “憂子弟之輕俊者, 只教以經學念書, 不得令作文字. 子弟凡百玩好皆奪志. 至於書札, 於儒者事最近, 然一向好著, 亦自喪志. 如王、虞、顏、柳輩 誠爲好人則有之, 曾見有善書者知道否? 平生精力一用於此, 非惟徒廢時日, 於道便有妨處, 足知喪志也.”

태도를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도학자’인 그들의 정신세계 내에서 글씨가 놓인 지위는 그리 높을 수 없었다.

다산 정약용의 학문 세계는 성리학의 과구窠臼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의 치밀하고도 방대한 고경古經 고증, 그리고 고제古制의 확실한 근거와 정확한 현실 분석에 입각한 대안 제시는 학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문詩文도 활발히 창작하였으며, 손대지 않은 분야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양의 저술을 남겼다. 학술과 문학 방면을 아우른 전통적 ‘문’이란 견지에서 조선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성취를 남겼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정도 수준의 문인학자가 글씨를 잘 쓰지 못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할 것이다. 실제로 다산은 상당한 능서가能書家였다. 해서 특히 소해小楷는 전아典雅하고 단정했으며, 행초行草는 유려하면서도 연미妍媚함으로 흐르지 않고 주경適勁하면서도 둔중함에 빠지지 않은 필법을 구사했다. 오늘날 후대인의 눈으로 볼 때 감상의 가치가 충분한 필적을 남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 정약용이 서예 ‘작품’을 ‘창작’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가 조선 학문의 새로운 경지를 제시했음은 십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사대부이자 유자儒者로서 아이덴티티를 벗어난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산은 유자로서 ‘문’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벗어나, 문 내에서 ‘서書’의 지위 제고를 위한 이론적 작업을 수행한 바 없다. 물론 이는 정약용뿐 아니라 글씨로 이름이 났던 조선시대 사대부는 대체로 그러하였다. 뛰어난 글씨를 남긴 조선의 문인학자들조차 글씨에 대한 이론적 탐구 및 그 가치에 대한 긍정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런 한편, 사자관寫字官이었던 석봉石峯 한호韓濩 등 몇몇 예외가 없지 않으나, 조선 글씨의 주류는 대체로 조선 학예學藝의 중심 담당자였던 사대부 계층이었다. 이 점이 중국

과 크게 다른 점으로서, 중국은 학예에 뛰어난 진신搢紳 계층의 서가書家도 물론 많았으나, 판교板橋 정섭鄭夔 등 양주팔괴揚州八怪나 등석여鄧石如 등 출신이 높지 않거나 여항에서 글씨에만 매진한 서가들이 명청대明清代 서단書壇을 주도하며 활발히 활동하였다. 따라서 중국 명청대의 경우는 창작자가 예술가로서 의식을 갖고 글씨를 창작하는 것도, 글씨가 일정한 의미 영역을 갖는 예술 장르로 인정받는 것도, 수용자가 미적 태도를 갖고 글씨를 감상하며 그것을 미적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강고한 성리학 전통을 갖고 있던 조선의 경우는 글씨가 미적 대상으로서 성립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미학사적 맥락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글씨를 조선 예술사의 흐름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위에서 인용한 정명도의 말대로 글씨는 문장과 시 등 ‘문자文字’(문학)와 더불어 문인사대부와 가장 밀착해 있는 매체이자 예술 장르이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해 버린다면 조선의 예술사는 상당히 빈약·공허하게 된다. 다산 정약용과 같은 위대한 문인학자이자 훌륭한 글씨를 구사했던 인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의 글씨가 미적 대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미적 태도론에 입각하지 않고도 그것이 미적 대상으로 성립할 수 있을 가능성을 모색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 본고는 그러한 모색의 일환으로서 다산의 글씨 중 뛰어난 성취를 보인 한 예인 〈하피첩霞帔帖〉의 글씨를 분석하여 다산 서예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적 시론으로 삼으려 한다. 이에 앞서 먼저 다산이 글씨에 대해 가졌던 인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2. 다산의 서법관書法觀

다산 정약용의 폭넓고 정밀한 고증에 입각한 학문은 당대 중국에서 발전한 고증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남인南人의 학적 전통에 힘입은 바 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글씨 쓰기를 대체로 여기餘技 내지는 말기末技로 취급했던 일반적 성리학 전통 속에서, 남인은 고경古經과 고제古制를 사상 및 정치적 입장의 주된 근거로 삼으면서 옛 글씨 즉 ‘고문古文’ 또한 중시했는데, 이는 조선시대 문예사에서 무척 이채로운 지점이다. 여기서 옛 글씨는 후대의 서체 분류로 말하면 주로 전서篆書 그중에서도 소전小篆 이전의 고전古篆을 가리킨다. 이는 남인의 중요 선정先正 중 한 명이었던 미수 허목 이래의 전통이며, 그 이후로도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 등 전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필적으로도 선보였던 이들이 몇몇 있었다. 그러나 당대 남인의 선진先進이었던 채제공蔡濟恭 등이 허목을 존송하는 태도를 종종 보였던 것과 달리, 다산은 그에 대해 존경을 표하거나 학문·사상적 계승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산은 미수 특유의 ‘고문’ 글씨인 소위 ‘미전眉篆’에 관심이 없었음은 물론, 다수의 서적을 고증하며 고어古語 혹은 옛 음운音韻에 해박한 소양을 갖고 있었음에도 전서에 대해 연구하거나 그것을 즐겨 서사하지 않았다. 그의 글씨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당대의 일반적 사대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런 면에서 다산 글씨의 미적 특질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의 서예 혹은 서법관을 먼저 확인해 둘 필요가 크므로, 여기에서는 고금古今의 서예 전범典範에 대한 다산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

1) 옛 서법의 전형인 이왕二王에 대한 존중

이왕二王 즉 왕희지王羲之와 왕헌지王獻之 부자의 글씨는 일상 글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행초楷行草의 전형이다. 특히 왕희지는 서성書聖이라 불리며 글씨 쓰기의 제1전범으로서 굳건한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는 고금古今의 통론이며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왕희지에 대한 존숭은 더욱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정론이 되었다. 다산은 특별히 왕희지의 글씨를 모방하거나 그의 글씨를 정밀하게 탐구한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글씨의 가장 올바른 모범이자 궁극의 지향점으로서 왕희지와 왕헌지를 든 예는 곳곳에 보인다.

용勇이란 지인용智仁勇 세 가지 덕 중 하나로서, 성인聖人께서 만물의 도리를 깨달아 천지의 일을 성취하고 천지를 두루 다스림이 모두 용으로 하신 것이다. 『맹자』에서 말한 ‘순舜은 어떤 사람인가, 순처럼 한다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자세로 행함이 곧 용이다. 경세제민의 학문을 하고자 한다면 ‘주공周公은 어떤 사람인가, 것처럼 한다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자세로 할 것이며, 뛰어난 문장가가 되려 한다면 ‘유향劉向과 한유韓愈가 어떤 사람인가, 것처럼 한다면 그와 같이 된다’로 할 것이며, 글씨의 명인이 되려면 ‘왕희지와 왕헌지가 누구인가’라고 하며, 부자가 되려면 ‘도주陶朱와 의돈猗頓이 누구인가’라고 하여서, 한 가지 바람이 있으면 한 사람을 목표로 삼아 반드시 그 사람과 같게 된 연후야 그치리라 기필해야 하니, 이것이 곧 용의 덕으로 행함이다.²⁾

2) 『與猶堂全書』 제1집, 「詩文集」 권18, 家誠, 「臚學游家誠」(『定本』 제4책, 39쪽). “勇者三德之一, 聖人之所以開物成務彌綸天地, 皆勇之所爲也. ‘舜何人也, 有爲者亦若是’, 勇也. 欲爲經

강진 유배 시절이었던 1810년에 유배지로 자신을 찾아왔던 둘째 아들 학유學游가 다시 떠날 때 써서 준 훈계의 글 중 일부로서, 아래에서 살펴볼 <하피첩>과 같은 해에 쓴 것이다.³⁾ 공부를 면려하는 내용의 글인데, 손쉬운 목표가 아닌 도달하기 어려워 보여도 궁극적으로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곧 ‘용’의 덕임을 설파하는 중에 그 궁극의 목표로 든 역사적 인물의 예 중 하나로 ‘희헌義獻’ 즉 왕희지와 왕헌지 부자를 들고 있다. 글씨라는 분야로 한정해서 말하자면, 이 둘은 유자라면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극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인지하고 있는 순이나 주공과 동격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셈이 된다. 왕희지와 왕헌지가 글씨의 궁극이라는 다산의 인식은 아래의 글에서도 드러난다.

위의 「십세유묵十世遺墨」 1권은 6촌 할아버지인 우리 족조族祖 둔촌遁村 옹翁(정지영丁志永: 정약용의 재종조再從祖)께서 수집한 것이다. …… 이에 조상들의 글씨를 사방으로 10여 년 동안 구하여 마침내 10세 할아버지들의 필적을 모두 얻었으니, 정말로 성심이 닿으면 구하여 얻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 월헌공月軒公(정수강丁壽崗)의 글씨가 절묘하니, 이왕二王의 진수를 얻은 바와 같은 값어치가 있다. 어째서 우리나라에서 글씨로 이름이 나지 않으셨는지 알 수 없다. 다른 여러 공공의 글씨는 호방한 것이 많으나 정도正道에 어긋남은 없다.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윤택과 기

濟之學, 則曰‘周公何人也, 有爲者亦若是’, 欲爲文章鉅工, 則曰‘劉向、韓愈何人也, 有爲者亦若是’, 欲爲書法名家, 則曰‘義、獻何人也’, 欲爲富, 則曰‘陶朱、猗頓何人也’, 凡有一願, 輒以一人爲準的, 期於必齊而後已, 此勇德之所爲也.”

3) 다만 <하피첩>보다 시기가 몇 달 이른다. <하피첩>은 이 해 7월, 이 글은 2월에 쓰였다.

력이 있으니, 요새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⁴⁾

선대先代の 유묵을 모아 엮은 첩帖에 부친 글이다. 위의 글에서 후인後人の 지향점의 한 예로 제시된 이왕二王이 여기에서는 선인의 필적의 가치를 가리키는 지표로 지시되고 있다. 월헌 정수강의 글씨는 물론 훌륭한 것이었겠으나 이 묵첩의 작첩作帖 목적이 위선爲先인 이상, 발문을 쓴 정약용에게 그 가치는 최상인 것으로 전제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 글씨가 ‘최상’임을 정확히 지시할 대상으로 왕희지와 왕헌지를 들었으니, 다산이 평소 이왕의 글씨가 글씨 중 가장 뛰어난 것의 대표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한 증좌가 된다.

이 밖에 다산은 왕희지의 대표작인 <난정서蘭亭序>의 정무본定武本 각본刻本을 보고 그에 대해 간략한 고증의 글을 남긴 바도 있다.⁵⁾ 다산의 왕희지에 대한 존숭은 그만의 독창적 견해로 볼 수 없으며, 당대의 일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든 두 예는 왕희지(혹은 왕헌지)의 글씨에 대한 직접적 연찬은 전혀 아니며, 글씨의 궁극을 가리키는 예로서 범범하게 언급하고 지나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산의 서사書寫 실천의 연원으로서 이왕의 필적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 고찰이 필요하다.

4) 『與猶堂全書』 제1집, 「詩文集」 권14, 跋, 「跋十世遺墨」(『定本』 제3책, 128쪽). “右十世遺墨一卷, 余族祖父【即六寸大父】遁翁之所蒐集也. ……於是求其手墨, 求之四方, 積十餘年, 而十世之手墨果盡獲之, 信乎誠之所到, 無求弗獲也. ……月軒公書法絕妙, 直得二王之髓, 不知其何以無名於東國也. 諸公書大抵多豪放, 然不失其步趨之正, 且有不可狀, 津液氣力, 非迎(近)世人所能及也.”

5) 『與猶堂全書』 제1집, 「詩文集」 권14, 跋, 「跋皇明宗室益王所刻定武本蘭亭真蹟」(『定本』 제3책, 150쪽).

2) 미불米芾 등 후대 서가書家들에 대한 다산의 인식

다산 정약옹의 방대한 저작 중, 서예에 대한 언급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다산이 글씨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언급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어서, 조선 중기의 명필인 죽남竹南 오준吳竣이나 다산보다 약간 앞선 시대의 백하白下 윤순尹淳과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에 대해 남긴 평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오준에 대해서는, 간독簡牘 글씨가 정밀·침착하여 법도가 있어서 후생들이 배울 기준이 될 만하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오준에 비견할 만한 것으로 윤순의 글씨를 들면서, 윤순의 글씨가 각박하여 함축이 적으며 기예가 뛰어난 글씨라고 평가하면서 오준의 글씨를 높이고 있다.⁶⁾ 또한 이광사에 대해서는, 크기가 작은 글씨의 해행초楷行草는 정밀·심오·기묘하다고 평하면서 이왕과 이장二張(장지張芝와 장욱張旭)에

6) 『與猶堂全書』 제1집, 「詩文集」 권14, 跋, 「跋竹南簡牘」(『定本』 제3책, 129쪽). “위는 <죽남간독竹南簡牘> 1권으로서, 故敎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오준吳竣의 글씨이다. 오吳 공公은 특히 글씨로 이름이 났으나, 그 문장 또한 풍부하고 폭넓지 않은바 아니다. 동주東州 이민구李敏求가 귀양을 갔을 때 오 공이 시를 보내 화답해 줄 것을 청하자, 동주가 ‘내가 곤궁함을 겪고 있는데, 오 여완汝完(여완은 오준의 자)은 시를 지어줄 것을 청하는구나.’라고 탄식했지만, 이는 동주가 실언한 것이다. 지금 전하는 오준의 간독 글씨는 모두 정밀, 침착하여 법도가 있으니, 후생들의 법도가 될 만하다. 요즘은 모두 윤순尹淳의 간독을 익히는데, 윤순의 글씨는 각박하여 함축이 적다. 요사이 40년 이래의 서법이 빈약해진 것은 모두 윤순 글씨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 죽남竹南(오준의 호)이 화타와 편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예로써 말하자면, 윤순이 더 낫다.”(右《竹南簡牘》一卷, 故弘文館提學吳公〔竣〕之手墨也. 吳公特以筆翰成名, 然其文詞未始不瞻博也. 李東州〔名敏求〕之枳廢也, 吳公寄詩求和, 東州歎曰: ‘人生困矣, 吳汝完乃要唱酬.’ 此蓋東州之失言也. 今所傳簡牘諸書, 皆精沈有法度, 可以模楷後生, 而近世皆習尹淳簡牘, 尹之書刻削少函蓄, 四十年來書法之消薄, 皆此祟也. 醫之奈何? 竹南其華, 扁也已矣, 然言之以藝, 則尹爲長.)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의 것을 이용하되,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이하 『여유당전서』 번역의 인용 모두 같음.

비견될 만큼 훌륭하다고 칭찬한 반면, 큰 글씨의 반행서半行書는 미친 듯이 마구 써서 기우뚱하도록 형태가 왜곡되어 둔중하고 신채神彩의 생동감이 없다고 혹평하기도 했다.⁷⁾

이와 같이 조선 중기 이후 명필들에 대해 존경심을 보이며 당대를 풍미한 백하 윤순의 척독 글씨에 대해서도 나름의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 다산이 동시대 조선의 글씨에 대해 일정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글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다산이 높이 평가하는 글씨는 법도를 갖추어 정밀하며 깊은 맛을 보이는 글씨라는 점이다.

학문에서 전반적으로 고학古學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는 다산이 글씨에서는 반드시 옛 것만 고집하지 않고 현재성을 띤 서법의 가치 또한 긍정했음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글씨를 배우면서 미불과 동기창의 서법을 구사하려는 이가 있으면 ‘저 순정純正한 왕희지만 못하다’고 말하고, 기술을 배우면서 설기薛己와 장개빈張介賓과 같이 되려는 이가 있으면 ‘저 옛날 단계丹溪 주진형朱震亨과 하간河間 유완소劉完素만 못하다’고 하면

7) 『與猶堂全書』 제1집, 「詩文集」 권14, 跋, 「跋夜醉帖」(『定本』 제3책, 129쪽). “위의 〈야취침夜醉帖〉 1권은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의 글씨이다. 근세의 서예가로는 이광사가 독보적이거나, 참관 조윤형曹允亨과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은 심하게 비난했는데, 이는 자신의 역량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비난한 이유는 있다. 이광사가 작은 글씨로 쓴 해서, 행서, 초서로서 법도가 갖추어진 것은 정밀하고 깊고 기묘하여, 잘 된 것은 이왕二王의 경지에 들고 질이 낮은 것도 이장二張의 경지 못지않다. 그러나 그의 대자大字 반행서半行書는 마구 써서 형태의 왜곡이 너무 심하니, 그 자형字形이 보기 싫을 뿐 아니라 회畫 또한 둔중하고 정체되어 생동감이 전혀 없다. 이러한데도 본받을 만한 글씨라고 말한다면, 치우치며 미혹된 견해이다. 이 첩 또한 작은 글씨의 해서와 초서가 뛰어난 뿐이다.”(右《夜醉帖》一写, 員嶠李匡師之書也. 近世書家, 唯李獨步, 而曹參判【允亨】、姜豹菴【世晃】深詆毀之, 不遺餘力, 蓋不量力耳. 然其所以致詆毀則有之, 其細楷行草之繩趨尺步者, 精深奇妙, 高者出入二王, 卑者不失二張, 然其大字半行, 顛狂敝倒太甚, 不唯其字形可憎, 竝其畫法或鈍滯無神, 以茲而謂亦可法者, 其偏惑者也. 是帖亦細楷小草爲長耳.)

서, 은연중에 옛사람에 의지해 소리를 높이며 일세를 호령하고자 한다. 저 왕희지·주진형·유완소와 같은 이들이 과연 우리나라 안동부安東府 사람이란 말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왕희지 글씨란 것은 우리나라에서 목판에 새긴 <필진도筆陣圖>이니, 도리어 미불과 동기창董其昌의 진적만 못하다.]⁸⁾

물론 이 글은 글씨에 대해 논한 것이 아니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을 논파하는 내용이다.⁹⁾ 즉 좋은 글씨를 구사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왕희지의 글씨보다 미불과 동기창董其昌의 글씨가 더 낫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미불과 동기창의 글씨에 대한 긍정적 판단 없이는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조선 후기에 ‘미동米董’의 글씨가 유행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¹⁰⁾ 동시대 중국 서단의 유행이 조선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 두

8) 『與猶堂全書』 제1집, 「詩文集」 권11, 論, 「技藝論二」(『定本』 제2책, 282-283쪽). “學書而有爲米、董者, 曰‘不如羲之之純也’, 學醫而有爲薛、張者, 曰‘不如丹溪、河間之古也’, 隱然倚之爲聲勢, 而欲號令一世. 彼羲之、丹溪、河間之屬, 果雞林之安東府人耶? 【俗所云羲之, 卽鄉刻木板《筆陣圖》也, 故反不如米、董眞蹟.】”

9) 위의 글. “農之技精, 則其占地少而得穀多, 其用力輕而穀美實, 凡所以蓄之耕之, 播之芸之, 鉦之剝之, 以至簸春洩炊之功, 皆有助於其利而省其勞者矣. 織之技精, 則其費物少而得絲多, 其用力疾而布帛緻美, 凡所以漚之浴之, 紡之縑之, 織之練之, 以至染采糲鍼之功, 皆有助於其利而省其勞者矣. 兵之技精, 則凡所以擊刺、防禦、轉輸、修築之功, 皆有以益其猛而護其危者矣. 醫之技精, 則凡所以切脈、審崇、辨藥性、察時氣者, 皆有以發前人之蒙而駁前人之謬者矣. 百工之技精, 則凡所以製造宮室器用, 以至城郭、舟船、車輿之制, 而皆有以堅固便利矣. 苟盡得其法而力行之, 則國可富也, 兵可強也, 民可裕而壽也, 方且熟視而莫之圖焉, 有說車者, 曰‘我邦山川險惡’, 有說牧羊者, 曰‘朝鮮無羊’, 有說馬不宜粥者, 曰‘風土各異’, 若是者, 吾且奈何哉?”

10) 조선 후기 미불과 동기창 글씨 수용의 전반적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서승례, 「朝鮮後期 米芾·董其昌 書藝의 수용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서예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서가의 수용을 한갓 유행에 따른 현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이 둘의 글씨가 그 자체로 글씨 쓰는 이들의 전범이 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화 문화의 전아典雅함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며 역대의 명필을 대거 수집했던 건륭제가 동기창의 글씨를 높이 평가했던 사실은 유명하며, 만명晩明 이래 양주팔괴 등 개성적 서풍과 전각篆刻과 전서의 유행의 흐름 속에서도 동기창의 우아·유려한 글씨는 일상적 글씨의 기초인 행초行草 서사자에게 매우 좋은 실질적 참고가 되었다. 이러한 동기창이 높이 평가했던 전대前代의 서가 중 한 명이 미불이다. 저명한 송사대가宋四大家, 즉 소식蘇軾·황정견黃庭堅·미불·채양蔡襄 중에서도 미불의 위치는 조금 독특하다. 후대인들이 '상의尙意'라 평하기도 할 정도로 서가의 의취를 담아내는 것을 중시했던 송대 글씨는, 종합적 문예인이었던 서가 각자의 개성을 오롯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불은 소동파·황정견·채양과 달리 별다른 학식도 문학적 소양도 없었다. 그의 서론書論으로 잘 알려진 「서사書史」·「해악명언海嶽名言」 등은 글씨에 대한 그의 단편적 언급들을 모은 절록節錄 형태의 저작이다. 미불은 그림에 대한 평을 모은 「화사畫史」에서 평담천진平淡天真을 강조했으며, 「서사」에서도 초일超逸과 함께 진인晉人의 천진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그는 전인前人の 서적書蹟을 널리 감상하였으며, 옛 글씨의 임모에 뛰어났던 것으로도 유명했다. 즉 미불은 송고崇古와 집고集古를 통해 왕희지를 중심으로 옛 글씨의 장점을 잘 집대성한 능서가였으며, 특히 초일하고 천진한 행초에 강점을 보인 서가라 할 수 있겠다. 그의 이런 면모는 현재 전해지는 그의 서예 작품들에도 잘 드러나 있다. 즉 조선 후기에 미불 서풍이 유행했던 원동력 중 하나로서, 그가 지녔던 서가書家로서의 이러한 장점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실제 다산은 미불의 글씨를 서법을 익히는 전범으로 권유하기도 했다.

(곡산부谷山府 관아를 짓고 남은 재료로 지은) 집이 완공된 후, 두 아들(학연學淵과 학유學游)을 불러 일러주었다. ‘못난 자제들은 부형(부)을 따라 부임지로 가서는 여색과 음식을 탐닉할 뿐이다. 분 바른 여인들과 가까이하며 향내를 맡고 기름진 음식 배불리 먹으며 맛을 즐긴다면, 이는 돼지나 다름없다. 못가에 집이 완성되었으니, 너희들은 여기에 거처하도록 하여라. 내가 여기에 오면서 책을 두 수레 가져왔으니, 이 집 방 시렁에 두고 읽어라. 그리고 안진경(안)과 미불의 여러 서첩도 가지고 왔으니, 베껴 쓰도록 해라. 책에서 향기가 나니 너희들은 그 향기를 맡을 것이며, 먹(묵적)에 맛이 있으니 너희들은 그 맛을 음미할지이다.’ 이에 이 집을 ‘서향묵미각(書香墨味閣(책 향기와 먹 맛의 집))’이라 명명하였다. 못가에 꽃나무를 많이 심어 서향을 돕도록 하였으며, 벽에는 행서(行書)와 담묵의 그림을 빙 둘러 묵미(墨味)를 돋우도록 하였다. 아이들에게 해준 말을 이렇게 써서 이 집의 기문(記文)으로 삼는다.¹¹⁾

황해도 곡산부사谷山府使 재임 시 집무실인 정당政堂을 개수하고 남은 재료로 지은 서향묵미각書香墨味閣이란 건물에 대해 쓴 기문記文이다. 조선시대 지방 수령은 부임지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부임지의 행정 업무 및 자신의 개인 용무를 도울 사람이 필요했기

11) 『與猶堂全書』 제1집, 「詩文集」 권14, 記, 「書香墨味閣記」(『定本』 제3책, 112쪽). “閣既成, 召二子而告之曰: “不肖子弟, 隨父兄之官者, 唯色與食, 是溺是噴, 親近脂粉而嗅其香澤, 飫厭膏粱而玩其旨味, 如是者豕而已矣. 池閣既成, 汝其居之. 我之來也, 載書二車, 汝其皮之. 携有顏, 米諸帖, 汝其臨之. 書之有香, 汝其嗅之, 墨之有味, 汝其玩之.” 於是名其閣曰 ‘書香墨味’. 池邊多植花木, 以助書香, 壁上徧題行書澹畫, 以助墨味. 書其所與語者以爲記.”

때문이다. 이런 비서 격의 자제子弟는 주로 동헌東軒 옆 작은 부속 건물인 책실冊室에 머물렀다. 서향묵미각은 이러한 책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임지의 수령 자제들이 향락에 젖어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많았기에, 다산은 자신의 두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뜻으로 건물의 이름을 지으며 이 기문을 써준 것이다. 다산은 부임지에 아들들을 동행하면서 이를 교육의 기회로 삼았는데, 이때 이들이 독서를 하는 한편 서법을 익히도록 하면서 자신이 원래 소장하고 있던 ‘안미顏米’의 법서를 학습 전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산이 평소 안진경과 미불의 글씨를 서사의 참고 자료로 삼았음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대목이다. 안진경은 충절忠節의 상징이며 글씨가 굳세므로, 노론老論은 물론 정조正祖 또한 매우 선호했던 서가이다. 그러나 다산의 글씨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안진경 글씨의 영향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서예미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았던 다산은 자신의 글씨의 전범에 대해 그다지 깊은 연찬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그 서예의 연원을 찾아보려면 당대 유행했으며 글씨 전범으로 일정한 기능을 했던 안진경·미불·동기창의 서법 중에서 미불의 글씨를 어느 정도 참고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아래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면서 다산의 글씨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하피첩霞帔帖〉과 미불 〈축소첩蜀素帖〉의 비교를 통해 본 다산 행초서行草書의 특징

〈하피첩〉은,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 중이던 1810년 경오庚午년에 그의 부인이 유배지로 보내준 혼례 때 예복으로 입었던 색 바랜 치마를

잘라, 그 위에 그가 직접 글씨를 써서 첩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 해는 그의 나이 49세 때로서 강진으로 유배 온 지 10년이 되던 해였다. 유배를 시작할 때 10대였던 두 아들 학연學淵과 학유學游는 어느덧 각각 28세, 25세가 되었다. 가족에게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고이 간직했다가 보내준 혼례복에 아이들에게 주는 훈계의 말을 친필로 쓴 것이니, 이 첩에 담긴 다산의 애뜻하고도 정성 어린 심정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하피첩>은 원래 갑을병정 4개의 첩으로 구성되어었는데, 병첩丙帖은 일실되어 현재 전하지 않는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하피첩>의 서체는 행초行草를 기조로 하여, 전서篆書와 해서楷書를 군데군데 가미하였다. 본 첩은 두 아들에게 주는 경계의 글들이 그 수록 내용의 대다수를 이루는데, 이 글들은 대개 다산이 평소 자주 쓰는 유려하면서도 강단 있는 행초로 쓰였다.('행초'이나 행서行書가 주조를 이루며, 초서草書의 기미는 비교적 적다.) 갑첩甲帖은 모두 행초로 쓰였으며, 을첩乙帖과 정첩丁帖 맨 앞에 놓인 본 첩의 서시序詩에 해당하는 같은 내용의 시詩를, 을첩은 전서로, 정첩은 해서로 썼다. 또한 을첩에서 '경직의 방敬直義方'이란 『주역周易』과 『심경心經』을 출전으로 하는 어구를 해서로 쓰고, 중간인 사언시四言詩는 전서로 쓰는 등 변화를 가했다.

<하피첩>의 전체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²⁾

12) <하피첩>은 면수面數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에서 '수록 면'은 공면空面을 제외하고 글씨가 기재된 면만을 기준으로 센 것이며, 첩帖의 반엽反葉이 아닌 펼친 면 2엽을 1면으로 계산하였다. 즉 검색의 편의를 위해 원첩原帖이 아닌 현대에 발행된 도록의 인쇄면을 기준으로 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 발행 도록 참조. 『하피첩, 부모의 향기로운 은택』, 국립민속박물관, 2016.

갑첩甲帖

연번	수구首句	수록 면	서체	내용
1	余在耽津謫中	001 ~ 002	行草	전체 서문. 作帖 전말을 기술
2	孝弟爲行仁之本	003 ~ 009	行草	집안의 화목을 강조
3	中國文明成俗	010 ~ 017	行草	서울에 거주할 것. 心氣를 和平하게 할 것

을첩乙帖

연번	수구首句	수록 면	서체	내용
1	病妻寄敝裙	001	篆書	序詩. 서문의 내용을 五言詩로 표현
2	敬直義方	002	楷書	“敬以直內 義以方外”를 4자로 줄인警句
3	陸子靜曰	003	行草	陸九淵 語句. 大丈夫로서 자아의 확립
4	顛木有藥	004 ~ 005	篆書	四言詩. 곤경을 겪어도 誠敬을 지닐 것
5	士大夫心事	006 ~ 008	行草	말조심의 중요성
6	吾家自先世	009	行草	당파심을 철저히 없앨 것
7	大饑	010	行草	하늘을 게으른 사람을 미워하여 벌을 내림
8	余無宦業	011 ~ 014a	行草	근면(勤)과 검소(儉)의 중요성
9	勤以生貲	014b	篆書	勤儉을 권면하는警句를 篆書로 씀

병첩丙帖 : 일실佚失

정첩丁帖

연번	수구首句	수록 면	서체	내용
1	病妻寄敝裙	001	楷書	서시. 乙帖-1과 같은 시를 楷書로 씀
2	劉向有歆	002 ~ 004	行草	나(다산)의 글을 읽고 연구할 것을 부탁
3	君子著書傳世	005 ~ 006	行草	나의 글을 알아주는 이를 父兄으로 삼을 것
4	嘗見先輩著述	007 ~ 009	行草	학문에 앞서 威儀를 세울 것
5	世間衣食之需	010 ~ 011	行草	재물은 쌓지 말고 남에게 베풀어야 함
6	晚間試步林樊	012 ~ 013	楷書	큰 곤경도 達觀의 경지에서 볼 것
7	故家世族	014 ~ 015	楷書	우리 가문의 터전인 馬峴을 지킬 것

다산은 시문 및 저작의 원고原稿, 그리고 지인과 주고받은 간찰 등 친필 필적을 적지 않게 남기고 있으나, 본 <하피첩>은 행초는 물론 전서와 해서까지 다양한 서체를 갖추고 있으며 자손들에게 길이 전할 것을 기하면서 잘 선별한 훈계의 말을 공들여 쓴 것으로서, 다산 서예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정성을 기울여 제작한 것이긴 하나, 가장 친밀한 상대인 아들에게 준 것이어서 다산의 평소 서풍이 잘 드러나 있다. 본고는 이 중에서 행초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³⁾ 다산은 서가書家로 자처하지 않았으므로 평소에 주로 쓰는 서체에 그의 글씨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채로우나, 다산은 평소 전서에 대한 연찬이 적어 그의 전서에는 타인과 다른 그만의 특징은 적다.¹⁴⁾ 또한 다산은 매우 정연하고 전아한 해서를 구사했으나, 수록된 양이 적기도 하고, 해서는 서가의 평소 수련을 잘 드러내는 서체이긴 하나 그 특질을 차별적으로 드러내어 분석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본고에서는 일단 논외로 하였다.

본 첩에 수록된 다산의 행초서를 분석하면서, 분석을 위한 대조군으로 미불米芾의 글씨를 설정하였다.¹⁵⁾ 그리고 미불의 글씨 중에서도 타

13) <하피첩>의 전반적 서풍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홍현순, 「茶山 丁若鏞의 書藝研究—霞帔帖을 中心으로」, 대전대학교 서예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14) 조선후기 전서篆書 서풍의 전반적 경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다음 논문에서는, 정약용의 전서를 다루며 <하피첩>의 전서에 대해 논하면서, 다산 <하피첩> 전서의 서풍을 허목 이래 남인 계열의 '고문古文' 전서의 전통의 자장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류승민, 「조선후기 篆書風 연구」, 고려대학교 문화재학협동과정 미술사학 박사학위논문, 2021, 189~190쪽.

15) 상당히 앞선 시대의 서가인 미불과 달리 동기창은 그리 머지않은 시대의 인물이었으므로, 당시 조선에서 유통되었던 비첩 및 묵첩 중 미불보다 동기창의 것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산 글씨의 경우도 그 직접적 연원을 탐색하려면 동기창의 글씨와 먼저 대조해볼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다만 앞서 서술했다시피 동기창이 미불을 상당히 존숭했으므로, 그의 서예 세계에 미불의 그것이 내포되어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본고의 목표가 다산 서예의 연원에 대한 史的 탐구보다 그 미적 지향에 대한 탐색에 있으므로, 우선 미불의

이베이 고궁박물관 소장 <축소첩 蜀素帖>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간혹 <군옥당첩 群玉堂帖> 등 다른 작품 또한 참조하였다. <축소첩>은 미불 38세 때인 1088년 작작인데, 미불의 대표작 중 하나이면서 건본 絹本에 필사된 것이다.¹⁶⁾ 때문에 다산 중년작이면서 역시 주로 비단 위에 쓰인—지면 紙面도 일부 있음—<하피첩>과 대조에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군옥당첩>은 말년작을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미불의 각첩(刻帖)이 일부 유통된 것으로 보이나, 다산이 미불의 어떤 글씨를 소장하였으며, 본인의 서사를 위해 그리고 자제의 글씨 교육을 위해 미불의 글씨 중 정확히 어떤 작품을 택하여 참고했는지 정확히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¹⁷⁾ 다만 미불의 친필일 가능성은 적고, 판각된 비첩碑帖이나 목적墨跡일 가능성이 크다. 조선 후기에 미불의 <군옥당첩 群玉堂帖>·<보진재첩 寶晉齋帖>·<계금당첩 繼錦堂帖>·<백운거미첩 白雲居米帖>·<지지각미첩 知止閣米帖>·<관경당미첩 貫經堂米帖> 등 다양한 미불 서첩書帖¹⁸⁾이 유입되었으며, 궁중의 장보각藏譜閣에는 미불의 진적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한다.¹⁹⁾ 미불의 진적眞蹟을 다산이 직접 보았을 가능성은 적다

글씨와 대조하려 한다. 다산과 동기창의 서예에 대한 비교 연구 또한 중요한 주제이므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16) 미불 서예 세계의 특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으나, 다음을 주로 참조하였다. 曹菡麟, (中国文库 艺术类)『中国书法史-宋辽金卷』,『第四章 北宋后期的书法(中)-集古出新的巨匠米芾』,江苏教育出版社, 2007, pp. 169~212; 石川九楊,『中國書史』,『第二十七章 過剰なる「角度」-米芾「蜀素帖」』,京都大学学術出版会, 1996, pp. 252~259.

17) 조선 후기 중국 비첩 및 목적의 유통 상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다. 王亞楠,「朝鮮後期 中國 碑帖・墨蹟의 受容 樣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18) 특히 이들이 모두 개별 작품이 아닌, 다양한 작품을 모은 총첩叢帖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미불의 서풍이 전반적,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음을 보이는 한 징표가 된다.

19) 조선 후기 미불 법첩의 유통 및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위의 논문 170~175쪽을 참조했다. 여기에서는 미불 법첩의 유통 이외에 18~19세기 미불 글씨를 임서한 예로 徐懋修·李學達·朴允默·尹淳·孫錫輝 등을 들면서, 미불 법첩의 임서가 미불 서풍의 수용의 중요한 배경

고 생각되지만, 그림에도 본고는 미불의 친필을 <하피첩> 분석을 위한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본고의 주된 목표가 다산 서예 세계 전체의 성격 규명이나 서사 전범의 특징에 있지 않고 그의 서예 세계 중 개별 글씨(자형字形) 및 필획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다산이 직접 보았을 가능성이 큰 각첩보다 미불의 친필 쪽을 주 대조군으로 채택하였다. 개별 자형의 분석은 비첩·묵탁으로도 가능하지만, 운필運筆의 양상 및 필획의 특징은 친필의 경우가 훨씬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미불의 친필 중에서도 그의 대표작이며, 운필의 양상이 잘 드러나 있고 분량도 많아 자형字形을 찾기 쉬운 <축소첩>을 선택했다.²⁰⁾

1) 다산과 미불의 유사성

아래에서는 <하피첩>에 서사書寫된 정약용의 행서行書를 자형字形의 결구結構·체세體勢·필획筆畫 등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미불米芾의 행서 자형과 대조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히려 한다.²¹⁾

① 결구結構

글자 자형의 하위 단위들 간 결합인 ‘결구’는 글자(글씨) 형태를 파악

이 됨을 지적했다.

20) 대만 타이베이 고궁박물관 소장 <축소첩>은 동 박물관 사이트에 고해상도 이미지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이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21) 어떤 한 書家의 서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 전체의 포치나 行間의 章法 등을 포괄한 작품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개별 글자의 결구나 체세 혹은 개별 필획 등 또한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이것들의 분석만으로 서예 작품에 대한 이해가 완성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본고에서 개별자의 결구·체세·필획에 집중한 것은 분석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試論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하피첩> 및 다산 서예 세계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해서는 추후 심화 연구가 필수적이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틀이 되므로, 이를 토대로 <하피첩> 행서 자형의 몇몇 특징을 밝혀보려 한다. 문자 결구는 전통적으로 ‘편방偏旁’을 통해 분해하였으나, 편방보다 작은 하위 단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명칭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부분적 하위 요소(part)’라는 의미의 ‘부건部件’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ex. 아래의 ‘寸’)

ㄱ. 편방偏旁 등 부건部件의 구사

- 편偏

‘실 사糸(역)’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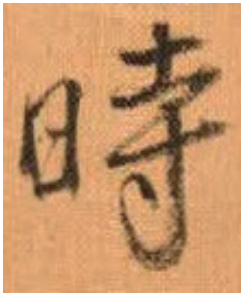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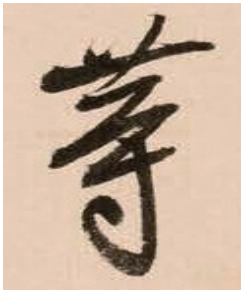
하피첩			
	절絶_하피첩_갑_011	종終_하피첩_갑_017	섬織_하피첩_을_006
축소첩			
	축縮_축소첩_擬古_제7행	채綵_축소첩_入境_제8행	연緣_축소첩_重九_제6행

<하피첩>의 ‘糸’ 변이 위의 형태로만 서사된 것은 아니지만, 위의 형태가 본 첩 행서의 한 특질을 대변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것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모두 마치 ‘彳’ 혹은 ‘冫’처럼 썼는데, 특히 ‘絶絶’과 ‘섬纖’에서는 가장 위의 ‘丿’을 강하게 쓰고 나머지 2개를 종속시켰다. 이는 <축소첩>의 ‘축縮’과 ‘연緣’의 힘의 구사와 유사하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글자 원편을 더 강하고 크게 쓰는 경향 및 글자의 일부 획—대개의 경우 첫 부분 혹은 원편—을 강하게 쓰는 경향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 방旁

촌寸

하피첩			
	시時_하피첩_갑_005	득得_하피첩_갑_006	등等_하피첩_을_009
축소첩			
	사射_축소첩_擬古_제6행	수壽_축소첩_擬古_제10행	대對_축소첩_和林公_제6행

미불은 <축소첩>에서 다종다양한 운필運筆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 작품에 풍부한 변화의 묘미를 주어 감상자가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

을 정도이다. 사射·수壽·대對의 ‘寸’의 서사 양상은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른데, 급한 각도의 갈고리를 맺어 마지막 점으로 향하는 ‘壽’와 달리 ‘射’와 ‘對’는 완만한 각의 갈고리를 조금 길게 뻗 후 점을 찍어 마무리했다. 점의 세기 또한 ‘射’와 ‘對’가 달라서 ‘射’는 매우 강하게 찍었다. 이로 인해 ‘射’는 일반적 서사 양상과 달리 매우 독특한 형상을 빚어내는 결과를 내었다. 다산의 <하피첩>의 마지막 ‘寸’들은 <축소첩>에 비하면 서로 다소 비슷하여 <축소첩> ‘對’의 그것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 ‘寸’들 역시 일반적 서사 양상과 상당히 달라서 <하피첩> 행서에 유려한 맛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ㄴ. 글자 전체의 결구

제弟·제第

하피첩 (弟)				
	제弟1_갑_003	제弟2_갑_003	제弟3_갑_003	제弟_정_006
미불 (第)				
	축소送王渙之_3행	축소送王渙之_6행	岱廟 第一山碑	多景樓詩(上海博)

미불의 ‘제일강산第一江山’ 혹은 ‘제일산第一山’ 대자大字 행서는 널리 유행하여 중국 각지에 각석刻石으로 남아있으며, 조선에도 유입되어 간혹 유사한 글씨가 승경지勝景地에 편액 및 각석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일강산’(제일산)의 ‘第’는 미불의 다른 행서 작품인 〈다경루시多景樓詩〉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형과 그 자형이 일맥상통하며, 〈축소첩〉의 자형과도 상당히 비슷하다. 다만 〈축소첩〉 쪽은 ‘대죽머리’(竹)―행초서로 쓸 때는 ‘초두’(++)와 통합― 부분이 필획이 강조되고 크기도 큰데, 이는 〈축소첩〉 전반의 서사 경향에 해당한다. 그 나머지 아래의 ‘第’ 부분은 서로 비슷하다. 다산 〈하피첩〉의 ‘第’―〈하피첩〉에는 ‘第’가 없음―는 그 자형이 미불의 ‘第’와 매우 흡사하고, 특히 〈축소첩〉의 그것과 대단히 유사하여 놀랍다. 이 경우는 다산이 의식적으로 미불의 자형을 채택하여 구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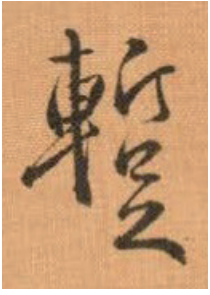
산山

하피첩				
	산山_갑_002	산山_갑_006	산山_갑_011	산山_정_009
미불				
	축소첩入境 7행	축소첩和林公 1행	축소첩和林公 6행	岱廟 第一山碑

〈하피첩〉의 ‘山’은 다산이 다른 곳에서도 즐겨 구사하는 자형이다. 이 자형은 미불의 ‘제일강산’(제일산)의 ‘山’과 크기의 대소大小는 다를지언정 유사한 체세體勢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산의 경우는 좀 더 납작하게 옆으로 긴 자형을 취하고 있어, 앞뒤의 글씨를 종으로 잇는 한문 서사의 행필行筆 중에 동세의 이채로운 휴지休止를 준다.

② 체세體勢

좌 치중

하피첩				
	현賢_갑_010	원爰_갑_012	잠甄_갑_012	궁窮_정_004
축소첩				
	현賢_入境_제2행	爰_送王渙之_8행	보報_擬古_14행	홍欸_和林公_8행

미불의 행서 특히 <축소첩>에서, 한 글자 내에서 왼쪽 위의 부분을 힘을 주어 그것이 글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키우고 획도 강조하는, 즉 왼쪽으로 치중하는 체세의 서사법이 매우 특징적이다. 물론 이런 치중을 구사한 것이 미불 뿐만은 아니나, 그가 평소 ‘초일超逸’ 및 ‘천진天真’의 가치를 강조했음을 고려하면, 그 창작 기제의 저변에 그런 가치들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글자를 쓰면서 시작하는 부분이 대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주는 것은 운필의 형세 상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은 ‘천진’의 가치와 상통한다. 또한 이렇게 쓰면 글자가 전체적으로 기우뚱해져 균형이 어긋나게 되는데, 이는 (단정한 절제 및 균형미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초일’의 가치와 연결될 수 있다.

다산은 평소 단아한 글씨를 썼다. 그런데 <하피첩>의 경우는 글자의 균형에서 파격을 선보이는 예가 유독 많은 편이다. 이는 이 첩이 편한 상대인 두 아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보일 글씨보다 더 편하게 운필한 결과일 수 있다. 이 첩의 내용이 ‘경계’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런 형식상의 파격은 그 내용과 일면 부조화를, 다른 한편 대비를 통한 보족補足을 이루는 면이 있다. ‘현賢’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산은 미불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한 파격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형 체세 상 좌편 혹은 좌상 치중은 <하피첩> 행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미적 특질 중 하나라 평가할 수 있다.

좌 편향

하피첩			
	화華_하피첩_갑_011	사事_하피첩_을_006	군君_하피첩_정_005
촉소첩			
	화華_촉소첩_擬古_제8행	필畢_촉소첩_重九_제4행	구龜_촉소첩_擬古_제12행

위의 좌편 치중과 유사하게, 〈하피첩〉에서는 글자의 세로축 또한 왼쪽으로 기운 경우가 많다. 〈촉소첩〉에도 이런 경향을 보이는 글자들이 눈에 띄는데, 〈하피첩〉의 편향은 종종 〈촉소첩〉보다 더 심하다. 위의 ‘화華’가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③ 필획筆畫

‘갈고리’(적趯 획)의 직각화

하피첩				
	행行_갑_008	즉則_갑_008	유有_정_005	향向_정_002
축소첩				
	소霄_擬古_제2행	의旒_擬古_제5행	양兩_擬古_제13행	何_送王渙之_12행

위의 ‘寸’의 서사에서도 약간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하피첩〉과 〈축소첩〉의 갈고리 획, 즉 ‘영자팔법永字八法’에서 ‘적趯’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적 경우와 달리 거의 수평의 직각을 이루며 꺾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일반적인 적획趯畫 마무리 방법과 매우 다른 것이어서, 이 필획과 자형 전체에 ‘인위적인’ 맛을 준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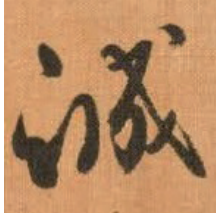
22) 이는 위에서 살펴본 ‘좌 치중’ 체세가 ‘천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과 상반되는 면이다. 동일 작품의 형태 창조의 기제에서 상반되는 면모가 드러난은 예술 창작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나, 그 기저에 있는 작자의 미적 지향에서 모순되는 두 경향이 공존함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할 지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교(交) 하부의 돌림(효효와 교교)

하피첩		축소첩	
	교교_하피첩_갑_012		군군_하피첩_정_005

‘교交’를 부견으로 갖는 글자들에서, 다산과 미불 모두 마지막의 회전 처리에서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 특히 미불의 경우 아주 둥글게 처리하고 있어 보기 힘든 조형미를 보이고 있다. 다산은 ‘交’의 윗부분이 미불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지만, 아래의 돌림은 상당한 정도의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처리는 행초서의 유려한 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다산의 경우 아래에서 볼 ‘약若’과 ‘무無’ 등의 날카로운 각도의 회전 처리와 반대되는 특질을 보여 이채롭다.

‘삼수 변(𣵀)’ 및 연관 편偏의 유사성

하피첩			
	설泄_하피첩_갑_005	후後_하피첩_갑_008	성誠_하피첩_갑_016
축소첩			
	동洞_축소첩_吳江_제2행	만滿_축소첩_吳江_제4행	수須_축소첩_吳江_제6행

행초서에서 ‘ㄷ’, ‘ㄷ’, ‘言’, ‘ㄷ’ 등이 편偏으로 올 때는 종종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점 3개의 처리 방식은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유형화시키기 힘들다. 위의 <축소첩>의 세 글자의 경우 다소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하피첩>의 위의 세 글자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동일한 기제를 거쳐 탄생한 동일한 결과물인지, 혹은 그저 우연의 산물인지 판단하기는 힘들다. 이에 대해선 좀 더 많은 예를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다산의 독자적 면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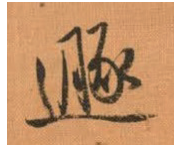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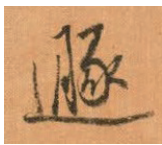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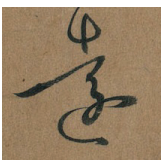
① 결구結構

말씀 언言 변

하피첩			
	적謫_하피첩_갑_001	은謚_갑_002	쟁靜_하피첩_갑_005
축소첩			
	송謫_축소첩_入境_제4행	사謝_축소첩_重九_제5행	

〈하피첩〉에서 ‘말씀 언’ 변이 종종 위와 같이 독특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다. 〈축소첩〉에서 그나마 유사한 예를 찾아보았는데, 이 두 경우도 〈하피첩〉의 위의 세 글자와 온전히 같지 않다. 이 경우는 다산의 독자적 변용 내지 형태 창조라 볼 수 있다. 영조英祖나 정조正祖가 유사한 형태의 ‘말씀 언’ 변을 쓰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책반침’(착_ 반침)

하피첩			
	하還_하피첩_갑_010	원遠_하피첩_갑_014	원遠_하피첩_갑_010
			
	둔還_하피첩_갑_012	둔還_하피첩_갑_014	일逸_하피첩_갑_013
축소첩			
	과過_축소첩_入境_제3행	환還_축소첩_擬古_제7행	축逐_축소첩_和林公_8행
			
	조迢_축소첩_和林公_7행	원遠_축소첩_入境_제3행	
기타			
	도道_智永_眞草千字文	원遠_孫過庭_書譜	

〈하피첩〉에서 ‘작 받침’(𡵓=𡵓)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그 형태의 기제를 온전히 알기는 힘들지만, 위의 예들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다. 첫 번째의 ‘하遐’와 두 번째의 ‘원遠’은 일반적인 해서의 표준적 ‘𡵓’ 형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마지막 획이 예서隸書적이지는 하다) 세 번째, 네 번째 자형부터 서서히 풀어져서, 다섯 번째의 ‘둔遯’에서는 획 2개만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마지막의 ‘일逸’은 크기마저 작아져 거의 초서草書에 가까운 형태를 띤다. 〈축소첩〉의 경우도 글자에 따라 완정하기도 풀어지기도 하지만 ‘𡵓’ 자체의 체세만은 다양성이 떨어져서, 첫 부분의 기울기에서 모두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하피첩〉은 더 다양한 면모를 보인다. ‘일逸’의 ‘𡵓’ 처리는 왕희지와 당대唐代 이래 정립된 초서의 그것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지영智永과 손과정의 경우 참조)

② 체세體勢

문門의 강력한 배세背勢

하피첩			
	동同_하피첩_갑_004	열閱_하피첩_갑_004	민閔_하피첩_정_004
축소첩			
	우羽_축소첩_擬古_10행	조朝_축소첩_和林公_8행	한閑_축소첩_重九_제5행

〈촉소첩〉의 경우 전체 글자들 중 배세와 향세向勢 중 향세 쪽이 더 우세한데 비해, 〈하피첩〉은 배세가 매우 많이 눈에 띈다. 숫자도 많을뿐더러, 나타날 경우 그 정도 또한 심하다. 위의 세 글자인 同·闕·悶 모두가 가장 오른쪽 획에서 심한 배세를 보이고 있다. 〈촉소첩〉의 ‘朝’도 비슷한 면모를 보이지만, 〈촉소첩〉에서 이것이 극히 예외적인 것인데 반해 〈하피첩〉에서 이 정도의 배세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③ 필획筆畫

왼빼침(악掠 획) 끝부분의 처리

하피첩			
	층層_하피첩_갑_006	복응服膺_하피첩_갑_008	벽辟_하피첩_갑_016
기타			
	제齊_촉소첩_擬古_10행	복腹_武威漢代醫簡	마馬_居延漢簡

〈하피첩〉의 왼빼침, 즉 영자괄법 ‘악掠 획’에서 종종 매우 특이한 형태의 마무리를 보이고 있다. 마치 갈고리처럼 급격하게 휘어져 올린 부분인데, 일반적인 해행초의 서법에서는 그다지 볼 수 없는 처리이다. 〈촉

소첩>에서도 보기 힘든데, 굳이 예를 찾자면 ‘제齊’에서 비슷한 획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상당히 다른 형태이다. 이런 서법은 원래 오래 전 간독簡牘에서 종종 보이는 매우 고졸古拙한 필획이다. 물론 다산이 간독의 서법을 참조하여 구사한 것이라고 확인할 수는 없다.

회전의 규각圭角

하피첩			
	정政_하피첩_갑_001	약若_하피첩_갑_006	무無_하피첩_을_006
미불			
	정政_축소첩_入境_제5행	약若_群玉堂帖	무無-粮院帖

<하피첩>의 글자들은 획을 돌리는 부분에서 날카롭게 각이 지게 처리한 경우가 많다. ‘약若’의 ‘右’ 부분은 일반적 행초의 운필과 매우 달라서 돌리는 부분마다 각이 져 있다. ‘무無’ 또한 전체 형태상으로는 미불 <양원첩粮院帖>과 일치하나, 획의 처리가 아주 달라서,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인상의 자형을 창조해냈다.

해서체·예서체 가로획의 구사

			
변辨_하피첩_갑_005	소所_하피첩_갑_015	서書_하피첩_정_003	시是_하피첩_을_008

〈하피첩〉의 ‘변辨’과 ‘소所’의 행서체에서 맨 위의 긴 가로획을 유달리 강조해서 서사하여, 전체 글자 중에서 매우 이채로운 주목처를 만들어 냈다. 일반적으로 한자 필사에서 글자의 주된 세로획을 길게 강조하여 써서 한 글자 조형의 중심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나—물론 〈하피첩〉에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다산은 여기에서 그런 세로획의 역할을 가로획에 맡겼다. 이 두 글자는 전체적으로는 행서이나 이 주획만은 해서의 필의 筆意를 보이고 있다. ‘시是’의 경우는 마지막의 획이 원래 우하로 비스듬히 내려 그어야 하나, 여기에서는 거의 수평의 횡획으로 처리했다. 획의 성질 또한 물결 모양의 파책을 지닌 전형적인 예서隸書 가로획의 마무리를 선보이고 있어 매우 이채롭다.

강한 점點 및 획畫의 구사

하피첩				
	두杜_정_002	사事_을_006	향向_정_002	여餘_갑_014
촉소첩				
	백柏_擬古_제6행	화華_擬古_제8행	본本_擬古_제8행	

글자의 첫 획 내지는 점에 강한 악센트를 주어 한 글자 조형미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서예 작품 서사에서 작가가 즐겨 채택하는 조형 전략의 하나이다. 매우 다양한 필획을 구사하는 <촉소첩>에서도 이런 강조의 강한 점획이 종종 나타난다. <하피첩>은 <촉소첩>과 비교하여 더욱 강한 강조가 자주 보인다. <하피첩>이 서예사상 명작으로 손꼽히는 <촉소첩>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극적 구성 및 변화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면모라 평가할 수 있다.

3) 〈하피첩〉 행초서의 특징

미불의 〈축소첩〉은 그가 평소 주창했던 ‘천진天眞’ 및 ‘초일超逸’의 가치를 자형字形 및 필획으로 형상화해낸 서예 작품이다. 천진 즉 자연스러운 형태의 좌측 치중 및 좌편향의 체세를 들 수 있다. 초일 즉 비범과 자유로움의 형태로는 ‘寸’ 부건의 마무리와 적획趯畫 갈고리 마무리의 직각화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런 형태적 요소들은 다산의 〈하피첩〉에도 미세하게 다르지만 전반적으로는 같은 기조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불과 다산은 자연스러운 동세와 의식적 형상화라는 두 대조적 특징이 잘 어우러진 자형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하피첩〉의 행서가 〈축소첩〉과 동조성만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피첩〉의 글씨들은 강한 배세背勢를 띠고 있어 미불의 글씨보다 좀 더 해정楷正한 미감을 준다. ‘약若’과 ‘무無’ 등의 회전이 규각圭角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그러한 느낌을 강화한다. 게다가 ‘변辨’과 ‘소所’ 등등 행서에서는 해서적 수평획을 글자의 동세를 장악하는 주획主畫으로 과감하게 설정하여서, 〈축소첩〉이 전반적으로 유려하고 다채로운 느낌을 주는 것과 달리 엄정한 강세를 주는 데 성공하였다.

『여유당전서』에서 보이는 미불에 대한 몇몇 언급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피첩〉이 〈축소첩〉의 글씨들과 갖는 강한 형태상의 유사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산의 〈하피첩〉이 미불의 글씨를 전범으로 삼았다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의 대조 작업을 통해, 다산의 시대에 조선에서 글씨의 전범으로 널리 받아들여졌고 다산도 이를 수용한 미불의 대표작인 〈축소첩〉이 보인 여러 미적 성취들을, 다산의 〈하피첩〉의 행서가 성공적으로 재현하면서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만의 성

취를 보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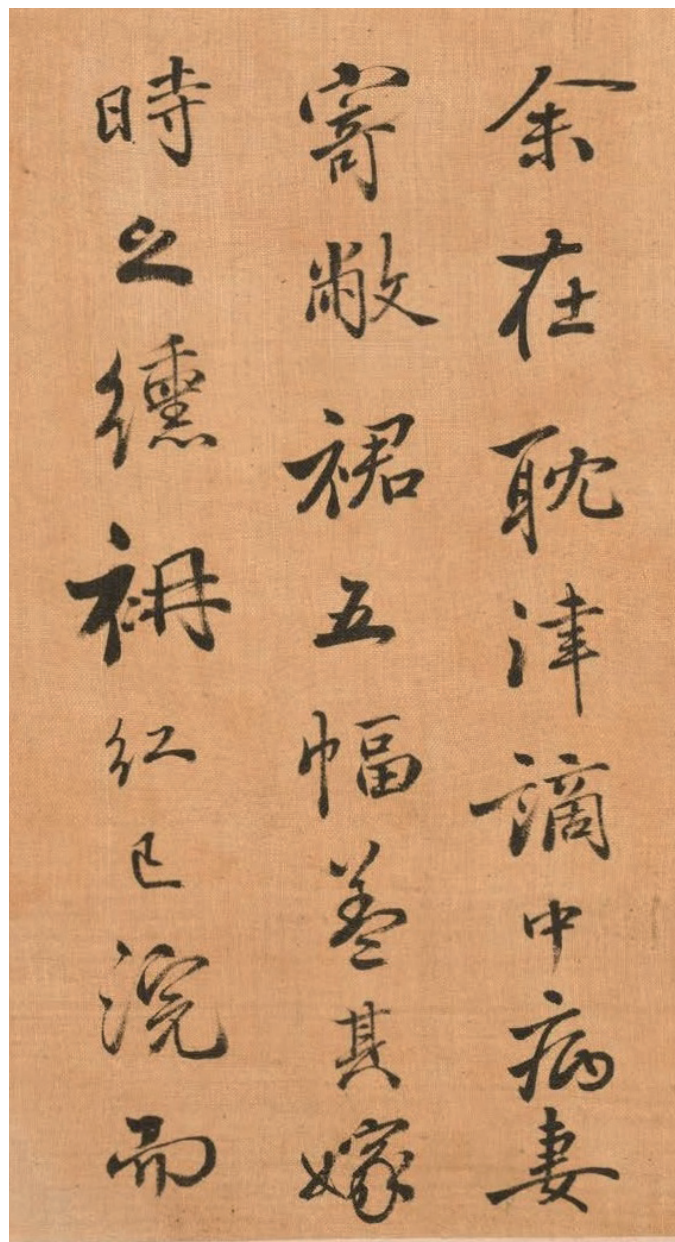
다산 정약용의 필적이 보인 미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다산을 서예가로 지칭하기에는 저어되는 점이 적지 않다. 방대한 저작을 남겼던 그가 서예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의 언급만을 남길 정도로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면모를 보였다는 점이, 그의 글씨를 연구하는 데 결정적 문제가 된다. 다산의 저작에서는 글씨 서사書寫가 갖는 독자적 가치에 대한 긍정의 표지를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글씨의 미적 특질에 대해 고려하면서 서사를 진행하는 작가적 태도를 다산에게 찾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글씨를 예술로 인지하며 감상하는 '미적 태도' 또한 찾기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그의 글씨가 좋은 글씨로서 갖는 여러 특징들을 갖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다산 서예의 미학적 가능성을 탐색해 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하피첩>의 글씨에 대하여, 미불의 대표작이며 다산 글씨와 동조성이 엿보이는 <축소첩>과 대조를 통해, 그 형태적 특성을 분석, 그를 통해 몇몇 미적 특질들을 도출해냈다.

학문 세계에서 다산이 보인 여러 혁명적 전환의 계기들에도 불구하고, 글씨의 측면에서 다산은 그다지 혁신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당대의 성향을 추수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실 위의 난점들은 다산 서예만의 문제는 아니며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서예를 다룰 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조선 서예에 대한 탐구가 갖는 이러한 근본적 난점과 조선 사대부의 글씨가 보인 미적 성취 사이에서, 그 성취

들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서예 미학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
탐색한 조심스런 시도이다.

(논문투고일 2023년 7월 30일, 심사확정일 2023년 9월 1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0월 6일)



정약옹 丁若鏞 〈하피첩霞披帖〉 (부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擬古
 青松勁挺姿凌霄耻
 屈盤種出枝葉
 連上松端秋花起
 旖旎雲錦殷不
 自立舒光射丸相見

미불米芾 〈속소침蜀素帖〉 (부분,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참고문헌

작품

丁若鏞, 〈정약용 필적 하피첩〉(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보물 1683-2호).

米芾, 〈蜀素帖〉(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도판 출처, <https://www.npm.gov.tw/>).

_____, 〈群玉堂帖〉(日本 東京国立博物館 소장. 도판 출처, <https://webarchives.tnm.jp/>).

도록

『하피첩, 부모의 향기로운 은택』, 국립민속박물관, 2016.

『(中国法書選 48) 宋 米芾集』, 二玄社, 1988.

원전

丁若鏞, 『定本 與猶堂全書』(원문 및 번역,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二程遺書』

米芾, 『海嶽名言』

_____, 『畫史』

_____, 『書史』(원문, 四庫全書 電子版)

단행본

石川九楊, 『中國書史』, 京都大学学術出版会, 1996.

曹菡麟, (中国文库 艺术类) 『中国书法史-宋辽金卷』, 江苏教育出版社, 2007.

논문

류승민, 「조선후기 篆書風 연구」, 고려대학교 문화재학협동과정 미술사학 박사학위논문, 2021.

서승례, 「朝鮮後期 米芾·董其昌 書藝의 수용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서예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王亞楠, 「朝鮮後期 中國 碑帖·墨蹟의 受容 樣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홍현순, 「茶山 丁若鏞의 書藝研究 一霞帔帖을 中心으로」, 대전대학교 서예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성리학을 학문의 기본으로 삼았던 조선시대 문인사대부들은 글씨의 예술적 가치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다. 다산 정약용의 학문 세계는 기존의 성리학자들과 차별성을 갖는 여러 혁신적 면모를 보이나, 글씨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전통적 유자儒者의 입장과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씨의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미적 특질을 규명하는 서예 미학적 작업에 난점이 존재한다. 본고는 이런 난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그의 글씨 중 대표작인 <하피첩霞帙帖>의 미적 특질을 규명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다산의 저작인 『여유당전서』에는 영성하긴 하지만 글씨에 대한 언급이 몇몇 보인다. 『여유당전서』 소재 글씨 관련 기사의 분석을 통해, 다산이 조선후기에 유행했던 미불米芾의 서풍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하피첩> 소재 행초서 분석의 실제에서는 미불의 대표작 중 하나인 <촉소첩蜀素帖>과 대조를 통해 그 미적 특질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하피첩>의 행초서 글씨가 미불 <촉소첩>의 글씨가 구현했던 천진天真과 초일超逸의 가치의 형태화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 자신만의 변용 및 형태 창조를 통해 독자적인 미감을 창출해내었음을 보였다. <하피첩>의 행초서는 그 결구結構·체세體勢·필획筆畫에서 자연스러움과 의식적 형상화라는 대조적 양면의 형상화를 성공적으로 성취해냈다. 조선의 문인사대부들의 글씨는, 그들이 도학자적 절제에 입각하여 글씨에 대해 취했던 조심스런 태도로 인해, 그 미적 특질을 규명하

는 서예 미학적 연구에 근본적 난점이 존재했으며, 다산 또한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본고는 능서가能書家였던 다산 정약용이 남긴 대표적인 서예 작품인 <하피첩>에서 보인 여러 형태적 특징들을 분석하여 그 미적 특질들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산 정약용 및 조선 사대부 서예 미학이 성립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주제어 | 서예, 서론書論, 하피첩霞帔帖, 미불米芾, 축소첩蜀素帖.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Tasan Jeong Yak-yong's Running and Cursive Script Calligraphy through the Case of *Ha Pi Cheop*(霞帔帖)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Mi Fu's *Shu Su Tie*(蜀素帖)

Yoon Sung-hun

researcher,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The literati of the Joseon Dynasty, who regarded Neo-Confucianism as the basis of their scholarship, hardly recognized the artistic value of calligraphy. Tasan(茶山) Jeong Yak-yong(丁若鏞)'s academic world showed several innovative aspects that distinguished him from the existing Neo-Confucian scholars, but he did not show much interest in calligraphy, and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traditional Confucian position. Therefore, despite the excellence of his calligraphy, there are difficulties in clarifying the aesthetic qualities of his calligraphy. This paper attempted to clarify the aesthetic qualities of his representative work, *Ha Pi Cheop*(霞帔帖), while fully recognizing these difficulties. In Jeong Yak-yong's complete works, a.k.a. *Yeoyudang Jeonseo*(與猶堂全書), there are a few mentions of calligraph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rticles related to calligraphy in *Yeoyudang Jeonseo*, it was confirmed that Tasan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calligraphic style of Mi Fu(米芾), which

was popular in the late Joseon period. In the actual analysis of *Ha Pi Cheop*'s running and cursive script(行草書), he clarified its aesthetic qualities by contrasting it with one of Mi Fu's representative works, *Shu Su Tie*(蜀素帖). Through this, it was shown that *Ha Pi Cheop*'s running and cursive script calligraphy showed a similar appearance to the realization of the values of naturalness and transcendence that Mi Fu's *Shu Su Tie* calligraphy had achieved, while creating his own aesthetic sense through his own variation and form creation. *Ha Pi Cheop*'s running and cursive script successfully achieved a contrasting manifestation of naturalness and conscious figuration in its structure(結構), posture(體勢), and stroke(筆畫). The calligraphy of Joseon's literati was difficult to clarify its aesthetic qualities due to their cautious attitude toward calligraphy based on Confucian restraint, and Tasan Jeong Yak-yong was no exception. This paper analyzed various formal characteristics shown in *Ha Pi Cheop*, a representative calligraphic work left by Tasan Jeong Yak-yong, who was a capable calligrapher, and clarified its aesthetic qualities. Through this, it tried to present one possibility for the establishment of Tasan Jeong Yak-yong and Joseon literati calligraphy aesthetics.

Key Words | calligraphy, calligraphy theory, *Ha Pi Cheop*(霞帔帖), Mi Fu(米芾), *Shu Su Tie*(蜀素帖).

